

신기범 선생님, 마틴 대위, 맥타거트... 삶의 고비마다 도움의 손길, 못잊어 비행기표에 유학 생활비까지 쥐어준 미 외교관



▲ 해군사관학교
생도 시절

“선배님, 혹시 지금 보청기 끼고 저와 통화 하시나요?” 얼마 전 동창회 보 편집인이 ‘나의 삶, 나의 이야기’에 글을 써달

라고 전화하면서 한 말이다. “아닙니다. 청력, 시력 다 정상이에요.” 내 대답에 그가 놀라워했다. “정말, 축복받은 삶이시네요.”

나는 요즘도 한 주에 한 번은 프리웨이를 운전해 골프를 치러 간다. 장기열(7회) 동문을 비롯해 타운의 올드 타이머와 함께다.

정말 그렇다. 내가 미국에 올 수 있었던 그 자체가 ‘축복’이다.

전북 이리 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를 하고 있을 무렵 얘기다. 서울서 전화가 걸려왔다. 허정 당시 서울시장의 보좌관으로 있던 고원창 선배로부터다. 다짜고짜 “오 중위, 시골 영어선생으로 썩을 거요?”라고 묻는 거였다. “서울에 가고 싶지만 길이...”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답을 내놨다. “미국 대사관에 일 자리를 마련했으니 빨리 오세요.”

이렇게 나는 미국과 인연을 맺게 됐다. 아서 맥타거트, 대사관에서 만난 그 외교관은 내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준 멘토이자 은인이시다. 스탠

퍼드 박사 출신인 그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도 관심이 많았다. 어느날 나를 집으로 초청해 손수 저녁을 차려주며 이야기를 나눴다.

“대사관 일에 만족하나요?” 뜬금없이 무슨 그런 질문을... “예, 대우도 만족스럽고, 토요일도 쉬고 한국과 미국 공휴일 다 쉬어 대만족입니다.” 내 대답에 맥타거트 박사는 정색을 하며 내 진로에 대해 조언을 해줬다. “당신은 지금 미국인들이 시키는 일 외에는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어요.”

말은 소프트 했지만 어조는 단호했다. “의미있는 삶을 살기 위해선 독립성과 창의성(independency and creativity)이

기표와 그들이 준 200 달러를 갖고 미국 유학의 길에 올랐다.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과의 인연은 부고재학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어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분은 신기범(훗날 서울사대학장 재직 중 테러로 사망) 선생님이셨다. 해방 후 미 군정시절이어서 영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터다.

‘실전 영어’를 배우기 위해 미 군정청의 장교클럽에서 ‘알바’를 했다. 학교가 끝나면 클럽으로 달려가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했다. 돈 버는 재미도 쏠쏠했고 또 영어실력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 피곤한 줄도 몰랐다.

이쯤해서 내가 어떻게 부고에 들어왔는지를 얘기해 보겠다. 내가 태어난 곳은 전북 익산의 황등이라는 농촌 마을이다. 그곳에서 국민(초등)학교를 마치고 경성사범

학교(사대부고의 전신)에 지원, 합격의 ‘영예’를 누렸다.

당시 정원은 120명이었는데 지원자가 2,450명이나 몰렸다. 합격자 중 조선학생은 고작 12명, 나머지는 모두 일본인들이었다. 합격통지를 받자 도지사까지 찾아와 “전라북도 전체의 영광”이라며 축하해줬다.

대학은 해군사관학교로 진로를 정했다. ‘우수 생도는 미국 유학 특전’이라는 문구에 강한 끌림이 왔다. 6·25가 터지기 한 달 전, 나는 40도가 넘는 고열로 쓰러졌다. 급성폐렴이라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게다가 약을 잘못 써 낙막염으로까지 병이 커졌다. 한 달 병가를 얻어 집에 왔

‘우수생도 미 유학’에 끌려 해사 입학 미 위생병이 항생제 주사, 내 목숨 살려

있어야 해요.” 그 분의 말이 내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사실, 미국유학의 꿈은 오래 전부터 꾸고 있었지만 현실이...”

내 말에 그 분은 유학시험에 합격하면 알려달라고 했다. 1961년 가을 나는 시험에 당당히 합격해 이 사실을 맥타거트에 알렸다. 이듬해 초 나는 그 분의 주선으로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입학허가서를 받아줄 수 있었다.

맥타거트는 내게 노스웨스트항공 탑승권과 함께 현금 100 달러를 손에 쥐여줬다. 동료 외교관 한 분이 내 소식을 들곤 100 달러를 보냈다. “공부 잘하고 돌아오라”는 격려의 말과 함께.

이렇게 나는 미국 외교관이 사준 비행

는데 공교롭게도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사관생도 신분이었기에 인민군에 잡히면 우리 가족 모두 처형감이었다. 해사 복귀는커녕 서둘러 온가족이 피란을 떠나야 했다.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바뀌어 나는 다시 고향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



그때 운명처럼 또 다른 미국인을 만났으니... 웨스트포인트(육사) 출신의 마틴 대위다.

내가 졸업한 황등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병사들이 교실의 책상을 들고나와 불을 지피고 찢고 있었다. 내가 강하게 항의하자 마틴 대위는 찢찢매매 '후진국 젊은이'에게 거듭거듭 사과를 했다. 그러고는 놀랍게도 나에게 사단 통역관이 되어달라는 제의를 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승락했다. 지금도 내가 마틴에게 해 준 말이 기억난다. "I'm more than happy to join you."

나를 미국과 인연을 맺게 해 준 첫 미국인이 마틴 대위다. 미 25사단 통역관이 된 나는 뜻하지 않게 돈도 벌고, 영어도 늘고, 또 병도 고쳤다. 그때 앓고 있던 늑막염이 악화돼 나를 괴롭혔다. '스트렙토마이신' 딱 한 방이면 끝나는데... 미군 위생병이 나를 살렸다. 내게 12차레나 주사를 놔줬다. 거짓말 같이 병이 깨끗이 나았

다. 그때 그 기쁨이란... 그 위생병은 그러나 중공군의 대공세 때

최후를 맞았다. 비보를 듣고는 얼마나 눈물을 쏟았는지. 비록 그는 이 세상에서 떠났지만 나는 그가 베푼 사랑에 늘 고마움을 느낀다.

얼마후 나는 육군통역장고 시험에 합격해 중위로 임관, 8사단에 배치됐다. 이른바 '철의 삼각지대'라 불리는 중부전선의 철원, 금화 지역 방어를 담당한 부대다.

내가 처음 미국 땅을 밟은 것은 1953년 8월 초다. 조지아주 포트 베닝에서 고등군사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 귀국



▲ 지난 2017년 전미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연례총회가 열린 한국을 방문, 2회 동기생들을 호텔 레스토랑으로 초청해 모처럼 회포를 풀었다.

UCLA 박사과정... 타운에 CPA 사무실 전미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창설, '보람'

후 유학에 대한 열망은 갈수록 커졌는데 길이 보이지 않았다. 6년 만에 군복을 벗고는 이리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취업했다. 그러던 중 고원장 선배로부터 '미 대사관' 전화를 받은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석사를 끝낸 내가 LA에 터를 잡은 건 오로지 UCLA에서 박사과정을 밟기 위해서였다. 그때가 1966년이니 벌써 반세기가 훌쩍 넘었다.

1972년 공인회계사(CPA) 시험에 도전, 합격해 사무실을 열었다. 한인 CPA는 열손가락을 꼽을 만큼 드물었다.

남가주 한인CPA협회에 이어 1998년에는 전미주공인회계사협회를 창설했다. 내가 초대회장을 맡아 틀을 잡았다.

3일 일정의 연례총회에는 전국의 한인 CPA 150명 가량이 모인다. 작년 총회는 시애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무산됐다. 아무래도 내년으로 연기해야 할 지 싶다.

협회 창립에는 이병항(8회) 동문의 도움이 컸다. 이 동문이 내 뒤를 이어 2대 회장으로 취임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일부에선 후배에 특혜를 준 거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이 동문은 자타가 인정하는 '공인' 실력자다.

돌이켜 보면 나는 많은 분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내가 한국을 떠날 때 결심 중 하나는 맥타거트를 비롯해 신세를 진 분들에게 이자까지 붙여 되갚아 드

리겠다는 것이었는데 그 분들은 이미 오래 전 세상을 떠났다. 요즘은 그 분들에게 속죄하는 심정으로 산다.

내 나이 올해 구순을 넘겼다. 삶의 고비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이끌었다고 감히 고백한다. 바로 주님의 사랑이다. 앞서 얘기한 내게 건강을 축복해 주신 이도 그 분이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는 성경구절을 후배들에게 남기며 글을 마무리한다. 인간이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다.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진리의 말씀이다.